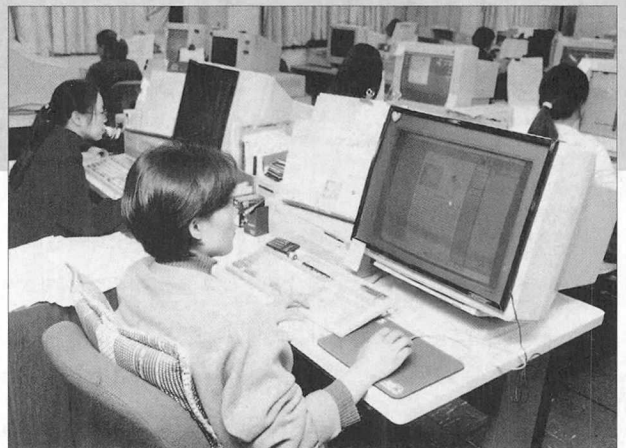


컴퓨터의 등장으로 예고된 '제2의 출판혁명'

컴퓨터가 바꿔놓은 90년대 한국출판의 변화상

지난 10년간 전산사식·인화지·대지·제판공·원고지 등의 말이 사라진 자리를 ISBN·CD롬·사이버문학·스크린북·인터넷서점 등 외래어가 메웠다. 90년대 초반, 컴퓨터가 출판계에 들어올 즈음 사람들이 예측한 일들이 대부분 실현됐지만 그만큼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전자출판과 종이책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였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출판의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책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동국전산 주식회사의 입력실 모습.

1988년 한국전자출판연구회, 1990년 한국전자출판정보학회 창립에 이어 1992년 한국전자출판협회가 발족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한국출판계에 밀어닥친 '전자출판'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드세졌다. 같은 해 한국전자출판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 '전자출판 및 편집전산화 현황과 개발방향'에서 당시 김희락 사무국장은 전자출판의 방향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번째 '전산사진식자조판(CTS)'에서 '컴퓨터에서 인쇄판 직접출력(CTP)'으로 발전, 두번째 CD롬 등 본격적인 전자출판물 개발, 세번째 온라인화. 대부분 전자출판이 대세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출판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불과 10년만에 확 바뀐 출판문화

1990년 원색화보가 많이 들어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가지》를 준비하면서 현암사는 처음으로 편집에 컴퓨터를 도입했다. 당시 시가로 한대에 2천만원이 넘는 가격이었다.

“다들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죠. 그 효과도 의문시됐구요.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줄면서 자연스레 컴퓨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암사 형난옥 주장은 편집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로 편집시간의 단축을 꼽는다. 작업시간이 단축되면서 기획이나 마케팅 측면에 좀더 신경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90년대 들어 기획과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화려한 레이아웃의 단행본이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나라 전자출판은 1979년 한국컴퓨터그래피사가 국산 전산 사식시스템을 처음 선보이면서 시작했다. 이로써 구텐베르크가 창안한 이래, 5백여년간 지속된 금속활자 시대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편집용 소프트웨어인 퀵익스프레스가 장착된 매킨토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편집에도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0년 전만 해도 출판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무용품이 접착제인 3M, 로트링펜, 철망이었습시다. 어떤 경우에는 전산사식으로 출력된 인화지를 가장 빨리 대지에 붙이는 사람더러 편집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영업부 최영일 차장은 전자출판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90년대 초반 출판사 분위기를 이렇게 말한다. 최차장은 출판계에 컴퓨터가 널리 퍼지게 된 시기를 대략 1994년으로 잡는다. 전자사식업체들이 필름출력업체로 바뀌면서 서서히 출판사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차장은 컴퓨터가 도입돼 제판까지의 작업이 크게 단축됐지만, 인쇄공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오퍼레이터가 원고를 하나하나 입

력하고 제판공이 편집자들의 지시에 따라 제판하던 일이 지금은 모두 편집부의 컴퓨터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일 뿐이죠.”

형주간도 최차장의 말에 동의하지만, 편집부 문화 자체는 크게 변했다고 덧붙인다.

“출판사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책상 위에 쌓인 원고지 몽치라든가, 어둡침침한 분위기. 책상마다 개인용 컴퓨터가 갖춰지면서 그런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컴퓨터통신으로 들어온 원고를 받아 컴퓨터에서 작업하죠. 필자를 만날 일도 많지 않구요.”

전체 인쇄과정에서 보자면 입력부분의 일부만이 전산화된 것뿐이지만,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예컨대 사식업체는 물론 오퍼레이터, 제판공 등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디지털문화의 기념비적인 해, 1994년

출판계에 불어닥친 컴퓨터 바람은 ISBN, 온라인서점, CD롬, 사이버문학 등 새로운 용어를 낳기도 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각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4년은 사회 전반적으로 컴퓨터 붐이 본격화된 해다. 교보문고 인터넷사업부 이현우 차장이 당시

교보문고 전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것도 이 해다.

“여러 문제가 있어 그때까지 교보문고는 자체 바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에 문의한 이라 그런지 왜 ISBN을 이용하지 않는가는 의문이 들더군요.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다녀보고 출판사에 공문도 띄워가며 95년부터 ISBN을 정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내부공사를 마친 교보문고는 다시 문을 열면서 자체POS시스템을 개발했다. 유통경로에 따라 같은 책이라도 마진율이 다른 점 등의 이유로 ISBN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자체 POS시스템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궁극적으로 유통전산화를 위해 ISBN을 정착시키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입고에서 매장에 깔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음은 물론, 일일이 바코드를 붙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이제 ISBN을 정착시키고 보니 현재 활발해진 인터넷서점의 토대를 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차장의 말처럼 서점 전산시스템 구축의 다음 단계는 전자상거래다. 전자상거래 역시 1994년부터 본격화됐다. 한일아이피·북넷 등이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컴퓨터통신으로 도서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초기 형태의 사이버서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도서 확보와 발송 문제로 상용화되지는 못하다가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화려한 그래픽과 할인율로 무장한 인터넷서점이 그 뒤를 잇게 됐다. 아마존의 성공에 자극받은 국내 인터넷 서점은 1997년 데이콤 인터넷, (주)아이테크의 북숍 등을 필두로 종로서적, 영풍문고, 교보문고가 참여하면서 급속히 늘었다.

CD롬 타이틀도 이 시기부터 활성화됐다. 1991년 국산으로는 최초의 CD롬 타이틀인 《성경라이브러리》(큐닉스)가 등장한 이래 교육용 타이틀을 중심으로 서서히 증가하던 CD롬 타이틀의 숫자는 1994년 CD롬 드라이브가 15만대 이상 보급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출판계에서는 《계몽사 CD롬 백과》(계몽사) 《국역판 조선왕조실록》(서울시스템) 《한국사》(한길사) 등 전자출판의 속성에 맞는 고용량·멀티미디어 CD롬 타이틀이 줄지어 출시됐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CD롬 타이틀의 숫자가 늘면서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이 속속 등장했다. 1996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각 대학 도서관, 상남도서관 등이 자료검색과 열람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즈음 컴퓨터통신이 일반화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다. 1994년 9월부터 엔터프라이즈 골든칩과 정보제공계약을 맺은 천리안 유료로 책을 다운로드해주는 방식으로 ‘스크린북 서점’ 서비스를 시작하며 실질적인 전자책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이 전자책 서비스는 흥미 위주의 책 선정과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읽어야 하고 서로 호환되지 않는 등의 불편이 많아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차세대 e-북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적인 출판과 전자출판의 결합 모색해야

앞의 세미나에서 컴퓨터가 출판의 하드웨어 부분에 미칠 변화를 다뤘다면, 1992년 7월 20일 《출판저널》 창간 5주년 기념세미나인 ‘책의 미래와 미래의 책’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주목했다. 김성근·복거일·이중환 등 발제자를 포함해 대부분 토론자가 문필가였다는 점에서 “발표를 듣다 보니 일종의 컴퓨터공포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기성 교수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에게 책의 미래는 전통적인 필자, 전통적인 책, 전통적인 서점,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디스토피아로 느껴졌을 것이다.

90년대를 빠져나오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이런 우려는 대부분 현실화됐다. 작가의 견고한 아성이 무너지며 누구나 컴퓨터통신에 글을 쓰고 책으로 묶어낼 수 있게 됐다. 컴퓨터 때문에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으며 인터넷서점의 영향으로 동네책방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 공포증을 성찰적으로 검증할 겨를도 없이 정보사회의 한 가운데로 접어들게 된 것처럼 출판의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되리라는 견해가 많다.

“아마 앞으로 5년 전후로 해서 용지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삼림이 종이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선진국에서 e-북 상용화를 주장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종이부족을 꼽아요. 이 점에서 전자출판의 의의가 생깁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김경희 회장이 출판계와 정부에 한국형 전자책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마련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런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 김회장은 계속 덧붙인다.

“아울러 출판의 기능이 좀더 확대돼야 합니다. 단순히 책의 영역을 벗어나 ‘기록’의 차원으로 확장돼야죠. 출판이 전자출판의 멀티미디어적인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992년 개최된 두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자출판, 혹은 컴퓨터를 피해갈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거부하고 싶은 물화된 테크놀로지로 인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전자출판이나 컴퓨터는 출판에서 남활판과 종이의 대체물로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책을 종이책의 반대개념으로 두고 글쓰기, 편집마인드, 책의 아우라 등 모든 점에서 서로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문명거부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필자가 찾아오면 나눠주던 출판사 전용 원고지도 사라졌고 사람 키만한 투고원고봉치를 찍어 소설공모 등의 홍보사진으로 남기던 일은 이제 20세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산사식업체에 인화지를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던 일도, 대지에다 흔적도 없이 기막히게 잘 ‘파블이던’ 신기의 편집기술도 함께 사라졌다. 지난 10년간을 돌이키며 동국전산주식회사 홍우동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기일 단축, 제작비 절감, 표현의 다양화 등 장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독성이 떨어지고 교정횟수가 증가하는 등 편집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인쇄효과도 나빠졌고 재작업도 훨씬 늘었습니다. 전문인력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죠. 컴퓨터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선공이 남활자를 가보처럼 보관하고, 편집자가 원고지에 쓴 필자의 원고를 애지중지하고, 서점주인이 신간서적을 소중히 다루던 그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야 진정한 의미의 전자출판은 시작될 것이다. 컴퓨터란 결국 책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